

PUBLICART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WWW.ARTINPOST.CO.KR JANUARY 2015



표지 작가 100

cover artist 100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4

100
201501



Michael Joo

NO.004 JANUARY 2007

マイ클 주

1966년 미국에서 태어난 설치미술가 마이클 주는 1989년 워싱턴 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1991년 예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주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으로 대표되는 현 시대의 정체성과 지식의 개념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데, 더 나아가 인간들의 '인지'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장소와 사람, 물체를 파고든다. '하이브리드'를 향한 작가의 관심은 개인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한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그에게 다양한 물리적, 문화적 배경을 선사했으며, 생물학을 전공했지만 결국 시각예술가의 길을 선택한 경험은 그의 작업에서 과학적 소스를 차용하게 했다. 1990년대 초기 작업에서는 눈물, 땀, 소변 등 인간의 분비물과 소금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과학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인간의 신체가 가진 본성과 에너지의 순환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차이와 경계를 초월해 순환하는 유동성과 균형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한국인과 미국인, 동양과 서양, 자연과 문명이 주는 경계에서 그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소통과 균형을 추구해 온 마이클 주는 왜 사람들이 보이는 그대로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지에 의문을 갖게 되고, 언어, 사회, 문화적인 통념이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쉽게 고착화시키는지를 밝혀냈다. 이를 통해 인류의 다양한 지식과 문화에 대한 인간의 인지의 영역을 병치시킨다. 그는 작업에 여러 매체와 재료들을 이용하고 이를 비디오,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한다. 마이클 주는 2006년 광주비엔날레 대상을 공동수상하기도 했으며, 2007년 로댕갤러리(현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국내 첫 개인전을 열었다. 그 후 다수의 국내외 전시에 참여한 이래, 지난 2014년 미국 알드리치현대미술관(The Aldrich Contemporary Art Museum)에서 〈Michael Joo: Drift〉를 개최했다. 전시제목 'Drift'는 카메론 라인(Cameron's Line)*에서의 그의 명상에서 비롯된 것. 그의 작품은 프랑스 파리 프낙(FNAC), 미국 뉴욕 구겐하임미술관(The Guggenheim Museum), MoMA, 휘트니미술관(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등에 소장돼 있다.

* 뉴욕에서 시작해 웨스트체스터 컨트리(Westchester Country)를 가로지르는 애팔레이치언 산(Appalachian Mountain)의 라인 형성에서 시작해 대륙의 단층 끝을 잇는 고대 봉합대

〈Stripped〉 2005 우레탄폼, 에폭시레진, 에나멜 페인트, 유리, 나무
185×87×170cm

